

한-루마니아 산업·통상·에너지 협력 확대 논의

- 「제10차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 열려
- 무역·투자, 산업기술, 원전, 방산 등 경제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25.(월) 서울에서 루마니아 슈테판 라두 오프레아(Stefan Radu Oprea) 경제기업관광부장관과 함께 「제10차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 논의하였다. 산업협력위원회는 2004년 구성한 이후 양국을 번갈아 개최되었으며 이번 제10차 회의는 원전, 방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안덕근 장관은 개회사에서 양국은 1990년 수교 이후 자동차 부품,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 왔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제조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기술, 원전, 방산,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2008년 양국 간 구축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아가자고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이 지속 증가하여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양국의 협력이 견고해지고 있음을 공감하고 전시회 참가, 투자정보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에 관련하여 동 규제들이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정, 이행될 수 있도록 루마니아 측의 관심을 당부하였고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R&D) 협력 의사를 표명하였다.

루마니아 측은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믹스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양측은 공통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과 한국이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 측은 작년 6월 양국 기업 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계약을 통해 협력의 큰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언급하고 가격·품질·납기 등 3박자의 최고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은 향후 루마니아 원전 사업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루마니아 측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우리 측은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가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현지 투자 및 기술이전, 제3국의 공동수출 등으로 경제효과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5660)
		담당자	행정전문관	김진석	(044-203-566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